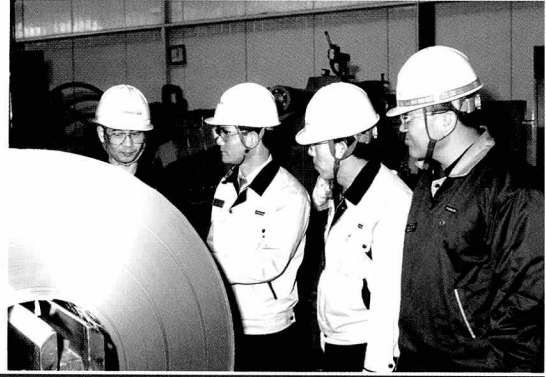


비철금속과 신동사업에 있어 세계에 우뚝 선 주식회사 풍산 온산공장은 노사상생의 길을 함께 하면서 주위로 부터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안전과 환경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친환경기업으로도 명성을 함께하고 있다. 이곳을 총지휘하는 신갑식 공장장을 만나 그의 안전세계를 들어 본다.



POONGSAN 풍산 온산공장(주) 신갑식 공장장

풍산 온산공장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풍산하면 일반적으로 방산제품, 소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산의 주력제품이 자동차 소재, 반도체 소재, 전기전자제품 소재 등의 비철금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 풍산 온산공장은 동 등의 비철금속 분야에서 세계 3대 기업이고, 주화 이전의 소전을 생산하는 신동사업에 있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60개국, 유럽연합 12회원국 3억 8천명,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미 달러 동전용 소전을 공급하는 등 단일기업으로도 세계 3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비철금속 생산과 신동전문기업으로 안전과 환경, 노사문화 등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세계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산공장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우

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 풍산온산공장의 노사문화는 1997년부터 노사협력선언 이후 2000년 노조의 항구적 무파업, 무쟁의 선언과 열린경영을 바탕으로 교섭조건을 회사에 위임하는 등 노사상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경에는 사원은 회사를 믿고,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경영 및 실적 보고 등의 투명한 경영을 비롯해 대화를 통해 쌓아온 상호 신뢰가 오늘의 노사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문화를 지속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원가절감, 품질향상, 생산향상인 First-Up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이고, 노사화합 한마당, 풍산가족 한마음 큰잔치, 사원부인교양강좌, 사원가족 생일, 결혼기념일 꽃 배달, 지부장배 족구대회 등 노사화합의 축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풍산 온산공장의 환경은 세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바랍니다.

저는 현장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자산 1호”

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합니다. 이는 설비도, 제품도, 사장님도, 나 자신도 아닌 바로 사원 여러분입니다.

안전과 함께 환경은 우리 회사의 자산 1호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지난 3년간 200억 이상의 설비개선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결과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기존의 중유, 경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면서 환경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에서 개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인데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정화활동, 환경동산조성, 환경지표수 식재와 지역주민의 환경견학 등을 통해 비철업계 최초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울산환경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온산공장은 비철금속을 생산함에 있어 위험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금속업종은 사고발생율이 높은 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이 높습니다. 비철금속을 용해, 주조, 가공, 포장하는 모든 단계를 거치므로 실제 그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온산공장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무재해의 길을 걷기 위해 해외 선진 안전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또 우리 공장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온산공장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1982년에 국내 도입한 위험예지 4라운드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기법을 실제 체험한 위험을 적출하여 소거하고 공정별 위험성평가와 병행하여 실질 관리로 질적 향상을 시킨 "체험예측위험적출소거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안전관찰프로그램(STOP)"도 그 중 하나인데, 지난해 전체 관리감독자에게 전과 교육을 마치면서, 금년에는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전파시켜 온산공장의 안전문화로 한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끝으로, 정해년을 맞이하여 직원과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600년만에 오는 복돼지 해에 이렇게 안전기술 독자분들을 만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돼지는 죽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동물로, 순진, 명랑, 다산의 의미로 재물이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밝은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 풍산온산공장의 자산 1회인 직원 여러분들도 안전사고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한해가길 기원합니다. <최종덕 기자>

